



나, 스위스 가면 꼭 한다 시리즈

“24 시간이 모자란다, 럭셔리 샬레 스타일 호텔에서 즐기는 호캉스”

호텔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된 스위스 체험

자연 한복판에 자리한 낭만 가득 럭셔리 샬레 호텔

객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알프스 뷰로 눈뜨고

스위스식 풍성한 아침 식사에 진한 커피 한 잔

야외 스파 체험하고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 한 잔의 나른한 오후

저녁 포함 하프 보드로 제공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코스 식사

깃털 침구 속에서 포근한 하룻밤

2021년에는 해외여행이 예전처럼 다시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 스위스 가면 꼭 한다’ 시리즈를 선보인다. 그 두 번째 꼭지로 스위스 럭셔리 샬레 호텔에서 호캉스 즐기기를 꼽았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자란 소나무 자재를 이용해 전통 목조 주택 방식으로 지은 호텔이 자연 한복판에 자리해 있다. 객실 인테리어는 나무를 사용해 아늑하고 낭만적이고, 객실 창밖으로는 알프스가 그림 같이 펼쳐진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주하는 알프스의 풍경이 감탄스럽다. 스위스에서 최초 개발한 정통 위슬리를 포함해, 지역에서 나온 각종 건조육과 신선한 치즈, 상큼한 과일과 주스, 향기 좋은 커피로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하고, 호텔 밖으로 나가본다.

호텔에서부터 마을과 마을 주변으로 이어지는 하이킹 트레일과 스키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걷고 달리며 다채로운 체험으로 하루를 보내고 다시 돌아온 호텔의 내부에 바로 위치한 천연 온천수가 나오는 스파 센터에서 정통 알프스 스파 체험을 해보아도 좋다. 야외 인피니티풀에서 즐기는 알프스의 뷰는 덩. 호텔에 마련된 카페나 바에서 나른한 오후를 보내다가, 호텔에 있는 미식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정찬을 즐길 채비를 한다.

특히 이런 샬레 호텔들은 “하프 보드(Half-Board)”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식과 석식이 숙박비에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하프 보드 투숙객용 3 코스 디너 메뉴가 매일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호텔에 따라 고미요(GaultMillau, 스위스판 미슐랭)나 미슐랭스타 셰프들의 요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호텔 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코스 요리 비용을 생각하며 꽤 경제적이고 훌륭한 옵션이다.

이렇게 호텔에 묵는 것만으로도 꼭 찬 ‘스위스 체험’을 선사하는 대표 샬레 호텔을 소개한다.

1. 체르마트(Zermatt)의 호텔 마티올(Hotel Matthiol)****s

체르마트의 숲 가장자리에 있는 슈퍼리어 4성급 호텔로, 마테호른(Matterhorn)의 뷰를 정면으로 선사한다. 젊고 혁신적인 매니지먼트 팀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라 젊은 여행자들에게도 인기 좋다. 럭셔리한 알프스 스타일로, 나무 바닥으로 마감한 객실의 분위기가 감탄스럽다. 현대적인 감각의 미식 레스토랑, 필레 에 피스(Filet et Fils)에서는 현대적인 터치를 가미한 전통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스팀 동굴, 야외 자쿠지처럼 색다른 시설을 갖춘 스파도 인상적이다. 겨울에는 호텔 앞까지 스키장이 연결되는 스키 인 & 스키 아웃 호텔이기도 하다. 여름에는 바이크 호텔로 거듭나며 라이더들을 반긴다. 반려견도 환영하고, 휠체어도 환영한다.

matthiol.ch

2. 그슈타트(Gstaad)의 알피나 그슈타트(The Alpina Gstaad)*****s

Switzerland Tourism

13Fl., Dongbu Dadong Bldg., Da-Dong, Jung-Gu, Seoul, Rep. 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그슈타트는 겨울이면 스키로, 여름이면 하이킹으로 유명한 마을이고, 마을 자체는 럭셔리 부티크 매장이 즐비해, 예로부터 유럽의 부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다. 골든패(GoldenPass) 기차로 찾아갈 수 있는 마을이라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2012년에 재단장을 마친 알피나 그슈타트는 스위스판 미슐랭 격인 고미요(GaultMillau)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다. 2013년에는 올해의 고미요 호텔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모던한 건축과 알프스 전통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럭셔리 샬레 호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56개의 널찍한 객실과 스위트룸 중 일부에는 벽난로도 설치되어 있어 낭만 그 자체다. 꿈결 같은 풍경이 발코니 너머로 넘실댄다. 고미요 16점을 받은 일식당이 하나 있고, 고미요 18점을 받은 소메(Sommet)와 스위스 전통 식당, 슈튀블리(Stübli)가 있어, 미식 체험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식스 센스 스파에는 실내외 풀장이 있고, 라이프스타일 코칭도 받을 수 있다. 알피나 라운지 및 바에서는 콘서트도 열린다. 그슈타트 마을 중앙에 자리해 있으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해 더욱 매력적이다. 스위스에서는 웨딩 호텔로도 유명하다.

thealpinagstaad.ch

3. 안데르마트(Andermatt)의 체디 안데르마트(The Chedi Andermatt)*****s

루체른(Luzern)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알프스 마을, 안데르마트에 트렌디하면서도 럭셔리한 샬레 호텔이 있다. 고요한 풍경 속에 2013년에 문을 연 호텔로, 겜스슈톡(Gemsstock) 케이블카에서 8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변에 펼쳐진 자연을 체험하기 편리하다. 객실과 스위트룸마다 알프스의 뷰가 한 아름이다. 알프스 정통 스타일에 동양적인 감각을 가미해 장식한 객실에는 미니바, 아이패드, 평면 TV가 설치되어 있어 객실에만 머물러도 근사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정도다. 200개가 넘는 벽난로가 호텔 전체를 아늑하게 만들어 준다. 오픈 키친(Open Kitchen) 레스토랑에서는 셰프가 예술 감각 넘치는 메뉴를 선보인다. 심지 호텔에 치즈 셀러도 있어 최상급 치즈를 맛볼 수 있다. 최고급 레스토랑 두 개에서는 미식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스파에서는 느긋하게 알프스식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이 바이크를 대여해 주변에 펼쳐진 자연의 품속을 향해 달려보아도 좋다. 디자인 & 라이프스타일 호텔로도 유명하며, 손꼽히는 웨딩 호텔 중 하나다.

thechedianderlatt.com

4. 사스페(Saas-Fee)의 발리저호프 그랜드 호텔 & 스파(Walliserhof Grand-Hotel & Spa)*****

사스페 마을 중앙에 자리한 5성급 호텔로 최근에 재보수를 거쳐 다시 문을 열었다. 오크, 점판암, 양털과 같이 럭셔리한 천연 자재를 사용해 알프스의 우아함을 호텔 곳곳의 디자인에 반영했다. 74개의 아늑한 객실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편안함을 갖추었는데, 대부분의 객실에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어, 객실에서도 낭만적인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알프스 방식대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바로, 스파를 찾는 것인데, 풀장과 사우나에서 알프스 정통 휴식을 체험할 수 있다. 호텔에 자리한 세 개의 레스토랑에서 격조 높은 미식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는 호텔로, 겨울에는 스키를 여름에는 하이킹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walliserhof-saasfee.ch

5. 렌처하이데(Lenzerheide)에 있는 마이엔샤스호텔 구아르다발(Maiensässhotel Guardaval)*****s

알프스 저지대 목초지에 자리한 독특한 호텔로, 300년이나 된 열 한 개의 오두막과 헛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렌처하이데 위쪽 해발고도 1,600m에 있는 마을, 슈포르츠(Sporz)에 자리한 이 호텔은 그라우뷘덴(Graubünden) 지역의 알프스 전통을 고스란히 살려 더욱 매력적이다. 300년이나 된 건물이지만, 럭셔리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슐랭 스타 1점과 고미요



16 점에 빛나는 셰프, 아드리안 뷔르키(Adrian Bürki)와 그의 팀이 로컬 식자재를 사용한 제철 메뉴를 선보인다. 스파 시설도 훌륭하고, 지푸라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재미도 맛볼 수 있다.

guardaval.ch

6. 체르마트(Zermatt)의 체르보 마운틴 리조트(CERVO Mountain Resort)*****

웅장한 마테호른의 환상적인 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에 자리한 호텔로, 평화로운 숲과 생기 넘치는 마을 분위기를 둘 다 가깝게 즐길 수 있다. 여덟 개의 럭셔리한 스타일의 샬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라이빗한 스파 시설도 갖춰져 있다. 리프트로 찾아가거나, 걸어서 찾아갈 수 있다. 알프스 샬레 디자인에 헌팅 룩지 감각을 가미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고미요 14 점에 빛나는 체르보-퓨로(Cervo-Puro) 레스토랑과 페르디난드 알파인 캐주얼 다이닝(Ferdinand Alpine Casual Dining)에서는 맛있는 미식 체험도 할 수 있다. 겨울이면 스키 뉘폴이인 아프레 스키(Après ski)를 위해 체르보의 바로 스키 인파가 모여들기도 한다. 웨딩 포토로 유명한 명소이기도 하다.

7. 베르비에(Verbier)의 호텔 더블유 베르비에(Hôtel W Verbier)*****s

산속에 지은 최초의 더블유 호텔로, 국제적인 호텔 체인인 디자인-호텔(Design-Hotel)에 소속된 호텔이다. 스키와 하이킹, 국제 음악제로 유명한 알프스 산골 마을, 베르비에(Verbier)에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호텔 아래로는 스키장이 바로 이어진다. 럭셔리한 객실과 스위트룸, 레지던스 객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모두 웅장한 뷰를 한 아름 선사한다. 800m² 나 되는 널찍한 공간의 하이테크 스파에는 온수가 채워진 실내외 풀장과 피트니스, 터키식 욕탕이 마련되어 있다. 라이브 DJ 바와 나이트클럽, 스타일리쉬한 라운지가 있어 젊은 스키 인파가 모이는 명소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웨딩 호텔로 자리 잡고 있다.

wverbier.com

8. 자넨뉘저(Saanenmöser)의 골프호텔 레조뜨 드 그슈타드 & 스파(Golfhotel les Hauts de Gstaad & Spa)*****s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로, 그슈타트의 남향 언덕에 자리한 전통적인 호텔이다. 메인 빌딩에 있는 27 개의 객실은 2013 년 새 단장을 통해 품격있는 알프스 디자인을 입혔다. 샬레 골피노(Chalet Golfino) 동에는 컨트리 하우스 풍을 가미했다. 스키장과 바로 접해있어 겨울에 특히 인기 있는 호텔이다. 골프장까지도 차로 3 분이면 된다. 고미요 14 점의 우아한 레스토랑, 벨 에포크(Belle Epoque)를 포함한 3 개의 레스토랑이 있어 미식 정찬을 즐기기도 좋다. 대규모의 스파 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실내 풀장, 테니스, 마운틴 바이킹도 즐길 수 있다. 뷰티 트리트먼트도 소문난 호텔이다. 홈메이드 허브 마사지 및 각질 제거 제품을 사용한다. 치즈를 거르고 남은 유청을 이용하는 목욕도 체험해 볼 수 있다.

golfhotel.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